

---

「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용역

# 결 과 보 고 서

---

2020. 11. 30.

기 관 명	대 표 자
(주)소셜밸런스	이 영 동

# 제 출 문

서울시NPO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위탁한 「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1.

- 용역수행기관      소셜밸런스
- 사업책임자        이영동
- 사업실행자        서화진, 신상선, 정명우

이 보고서는 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I. 사업개요	① 사업 개요	4
	② 한 눈에 보는 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사업	5
II. 사업추진내용	① 권역 내 자치구별 Connection Point 구축	6
	②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15
	③ 활동가 자기도전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18
III. 사업 평가	① 사업평가	23
	② 사업운영평가	24
IV. 사업의 효과 및 향후 계획	① 사업의 효과 및 향후 계획	27
첨부자료	① 광동성프로젝트 결과물	29
	② 자기도전프로젝트 결과물	34
	③ 역량강화 교육 강의안	46

# I. 사업개요

## 1. 사업 개요

사업명	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					
사업목표	권역 내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협력 강화 및 권역 의제해결 역량강화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1권 활동가 84명</li> <li>• 자치구 시민사회 추천 활동가 3명</li> </ul>					
사업추진 내용	사업명	내용				
	권역 내 자치구별 Connection Point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회의 5회, 공동이행세미나 1회, 총 50명 참석</li> <li>• 회의 주제_주요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별 NGO 현황과 이슈 공유</li> <li>▶ 활동가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기획</li> <li>▶ 동북1권에서의 벤치마킹/적용 가능한 내용 리뷰</li> </ul> </li> <li>• 공동이행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립된 공동이행계획 발표</li> <li>▶ 자기도전 프로젝트 발표</li> </ul> </li> </ul>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10월 5일~6일, 총12시간</li> <li>• 참여인원 : 총 34명(연인원)_각 일자 17명 (성동_7명, 동대문_3명, 광진_5명, SB_2명)</li> <li>•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li> <li>▶ 청년 &amp; 지역 시민사회활동 관련 토론</li> </ul> </li> </ul>				
	활동가 자기도전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 2020년 9월 ~ 11월</li> <li>• 참여대상 : 자치구별 추천활동가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뀌지 않으면 동네란 없다_청년 선배활동가 인터뷰</li> <li>▶ 워크맨 프로젝트_지역적 특색과약 및 탐색(활동가의 삶 이해)</li> <li>▶ 공익활동가 화합 프로젝트_공익활동가의 협력, 연대, 네트워크</li> </ul> </li> </ul>				
사업기간	2020. 6. 19. ~ 11. 30.					
사업비	계약금	11,000,000원	선금	8,800,000원	잔금	2,200,000원

## 2. 한 눈에 보는 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사업

### 회의운영



6회  
50명

- 동북1권역 시민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
- 총 6회 회의 및 공동이행세미나 개최  
(2020.07.22. ~ 2020.11. 24)
- 총 11시간의 회의 및 공동이행세미나 개최  
(오프라인 7.5시간, 온라인 3.5시간)

###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프로젝트(안)

- 2021년 광동성 프로젝트를 공동이행 과제로 의결
  - 현 회의체를 동북1권 시민사회네트워크로 전환
  - 자치구 및 권역의 청년이슈 발굴과 교류활성화
  - 동북1권 청년포럼 진행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공동주최)
  - 동북1권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및 정기화

### 역량강화교육



교육 12시간  
참가인원 34명  
만족도 91점

- 전체 교육 인원 34명(연인원)  
(2020년 10월 5일 ~ 10월 6일, 총 12시간)
- 주요내용:
  - 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 청년 & 지역 시민사회활동 관련 토론

권역 중심의 교육/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자치구가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제안/의결됨

### 자기도전 프로젝트



계획서 1건  
결과물 2건

- 진행 완료 2건
  - 활동가의 삶 이해
  - 활동의 지속가능성 탐색(선배 활동가와의 인터뷰)
- 계획서 1건
  - 공익활동가의 협력, 연대, 네트워크 강화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활동가 선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활동가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공익활동가로서 어떻게 협력/연대/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탐색

## II. 사업추진내용

### 1. 권역 내 자치구별 Connection Point 구축

세부사업명	정례회의 및 공동이행계획 세미나 운영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 2020년 6월~10월(월1회), 총6회(세미나1회 포함)</li> <li>○ 참여대상 : 자치구별 추천활동가 1인 이상(총 3인 이상) + 소셜밸런스</li> <li>○ 시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주제: 권역시민사회 내 공감대 조성 / 회의결과: 권역시민사회 이행 계획 수립</li> <li>▶ 주요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별 시민사회 활동 현안 및 정보공유</li> <li>- 권역공동 의제 발굴을 위한 논의 및 공동행동계획 수립</li> </ul> </li> <li>▶ <b>공동이행계획 세미나(활동가 20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립된 공동이행계획 발표</li> <li>- 패널토론</li> </ul> </li> <li>▶ 연대필요성 인식 관련 참가자 인터뷰</li> </ul> </li> </ul>																															
사업추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및 참여 인원             <table border="1" data-bbox="352 1059 1406 1406"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회차</th> <th style="width: 25%;">운영시기(날짜)</th> <th style="width: 15%;">참여인원</th> <th style="width: 45%;">장소(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회차</td> <td>2020년 7월 22일</td> <td>5명</td> <td>성동청년플랫폼</td> </tr> <tr> <td>2회차</td> <td>2020년 8월 5일</td> <td>6명</td> <td>성동청년플랫폼</td> </tr> <tr> <td>3회차</td> <td>2020년 8월 21일</td> <td>6명</td> <td>성동청년플랫폼(긴급)</td> </tr> <tr> <td>4회차</td> <td>2020년 9월 23일</td> <td>5명</td> <td>성동청년플랫폼</td> </tr> <tr> <td>5회차</td> <td>2020년 11월 18일</td> <td>5명</td> <td>온라인_ZOOM</td> </tr> <tr> <td>6회차<sup>1)</sup></td> <td>2020년 11월 24일</td> <td>23명</td> <td>온라인_ZOOM</td> </tr> </tbody> </table> </li> <li>○ 회의 주요 안건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별 NGO 현황과 이슈 공유</li> <li>▶ 활동가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기획</li> <li>▶ 2020년 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기관별 역할 배분</li> <li>▶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 관련 일정 변경</li> <li>▶ NGO 현황과 이슈 공유 / 동북1권에서의 벤치마킹/적용 가능성 리뷰</li> <li>▶ 활동가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교육 프로그램 일정 변경 확정 및 세부내용 확정</li> <li>▶ 공동이행세미나 및 개인 프로젝트 결과보고 등 최종발표회 관련 준비 및 협의</li> </ul> </li> <li>○ 공동이행계획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동성 프로젝트 (청년포럼) 진행계획 공유</li> <li>▶ 자기도전 프로젝트 진행 결과 및 향후 진행 계획 공유</li> </ul> </li> </ul>				회차	운영시기(날짜)	참여인원	장소(비고)	1회차	2020년 7월 22일	5명	성동청년플랫폼	2회차	2020년 8월 5일	6명	성동청년플랫폼	3회차	2020년 8월 21일	6명	성동청년플랫폼(긴급)	4회차	2020년 9월 23일	5명	성동청년플랫폼	5회차	2020년 11월 18일	5명	온라인_ZOOM	6회차 <sup>1)</sup>	2020년 11월 24일	23명	온라인_ZOOM
회차	운영시기(날짜)	참여인원	장소(비고)																													
1회차	2020년 7월 22일	5명	성동청년플랫폼																													
2회차	2020년 8월 5일	6명	성동청년플랫폼																													
3회차	2020년 8월 21일	6명	성동청년플랫폼(긴급)																													
4회차	2020년 9월 23일	5명	성동청년플랫폼																													
5회차	2020년 11월 18일	5명	온라인_ZOOM																													
6회차 <sup>1)</sup>	2020년 11월 24일	23명	온라인_ZOOM																													

□ 1차 회의

- 일자: 2020년 7월 22일 오후 4시 ~ 6시 (2h)

- 참석자: 총 5명

- 논의 안건

- ① 자치구별 NGO 현황과 이슈 공유
- ② 활동가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주요 결정사항

- ① '1안) 8월 27~29일 2안) 9월 3~5일' 에 권역활동가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교육 프로그램 실행
- ② 각 자치구별로 활동가 5명씩 선발, 소셜밸런스 구성원 등을 포함하여 20여명 참여 예상
- ③ 사업진행 계획은 정명우 사무국장이 초안 작성 / 행정은 소셜밸런스에서 정리 등

- 진행 사진



□ 2차 회의

- 일자: 2020년 8월 5일 오후 4시 30분 ~ 6시 30분 (2h)

- 참석자: 총 6명

- 논의 안건

- ① 2020년 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교육 프로그램 기획
- ② 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기관별 역할 배분

- 주요 결정사항

- ① 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8월27일~29일(2박3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 ② 본 워크샵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 동북1권역 각 자치구 시민사회 활동공유, 공감대 형성, 친목도모
  - ⓑ 동북1권역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 확인, 권역 네트워크 활성화
  - ⓒ 동북1권역 교류협력 방안 토론, 권역의제 발굴과 연대와 협력 중심의 문제해결을 통한

1) 공동이행계획 발표 세미나 (자기도전프로젝트 결과 공유회를 함께 진행)

### 동반성장 기회 조성

- ③ 참석대상자는 동북1권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총 20여명(자치구별 6명\*3개구+소셜밸런스=21명)으로 예상되며, 참가자는 교통비를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④ 사업진행관련 역할배분은 아래와 같음
    - ㉠ 3개구 활동가: 각 자치구별 참가자 모집 및 확정
    - ㉡ 광진구: 제주도 숙소(교육장 포함) 및 버스 예약 / 이동 중 식사 예약 등
    - ㉢ 동대문구: 여행자보험, 4.3기념관 해설사 섭외
    - ㉣ 성동구: 명찰준비, 참석자 명단 확인 등
    - ㉤ 소셜밸런스: 제반 행정업무 전반\_자료집/다과/현수막 등
  - ⑤ 교육 프로그램 진행 관련 콘텐츠
    - ㉠ 환영의 시간 & 각 자치구 시민사회 소개 및 현황
      - 시민사회 운동론 / 동북1권 시민사회 형성의 이해
    - ㉡ 보고 및 학습
      - 2019년 동북1권(성동,동대문,광진) 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보고
      - 디자인씽킹과 퍼실리테이션 이해/실습
    - ㉢ 토론 및 결과 발표
      - 협업 파트너 발굴과 연대를 통한 해결방안 찾기
      - 권역 의제 발굴 및 협업 모델 개발 등
- 진행 사진



### □ 3차 회의

- 일자: 2020년 8월 21일 오후 4시 ~ 5시 30분 (1.5h)
- 참석자: 총 6명
- 논의 안건
  - 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 관련 일정 변경



② NGO 현황과 이슈 공유 / 동북1권에서의 벤치마킹/적용 가능성 리뷰

- 주요 결정사항

① '8월 27-29일 권역활동가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교육 프로그램' 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② 「서남권NPO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 보고서」 리뷰

- 진행 사진



#### □ 4차 회의

- 일자: 2020년 9월 23일 오후 4시 ~ 6시 (2h)

- 참석자: 총 5명

- 논의 안건

① 서울시NPO지원센터 중간보고 일정 확정

② 활동가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교육 프로그램 일정 변경 확정 및 세부내용 확정

- 주요 결정사항

① 연기된 「권역활동가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교육 프로그램」 은 10월 5일~6일에 진행 결정

② 각 자치구별로 활동가 3~4명이 참석하는 것을 권고

③ 교육장소: 성동청년지원센터(왕십리로 287 2층)

④ 교육자료는 9월 26일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하며, 행정처리는 소셜밸런스에서 진행

- 진행 사진



□ 5차 회의

- 일자: 2020년 11월 18일 오후 7시 ~ 8시30분 (1.5h)

- 참석자: 총 5명

- 논의 안건

① 최종발표회(공동이행세미나 및 개인 프로젝트 결과보고) 관련 준비 및 사전협의

② 최종보고회 관련

- 주요 결정사항

① 최종발표회(공동이행세미나 및 개인 프로젝트 결과보고) 관련 준비 및 사전협의

- 일자: 11월 24일 오후 7시~9시 진행 / ZOOM으로 진행

- 참석자: 각 자치구별로 섭외 및 참석 요청

- 자기도전프로젝트 발표(각 자지구별 20분\_발표/질의응답)

+ 공동이행프로젝트 30분\_(발표 / 질의응답) + 토론 30분

- 공동이행프로젝트 : 광동성 프로젝트(청년 포럼) 발표

- 개인 프로젝트 결과보고 3개 자지구 프로젝트

• 성동구: 바뀌지 않으면 동네란 없다\_선배활동가 관련 인터뷰 (5건 등)

• 동대문: 동대문 워크맨 프로젝트\_동대문구 지역적 특색과약 및 탐색(활동가의 삶 이해)

• 광진구: 자기도전 프로젝트\_계획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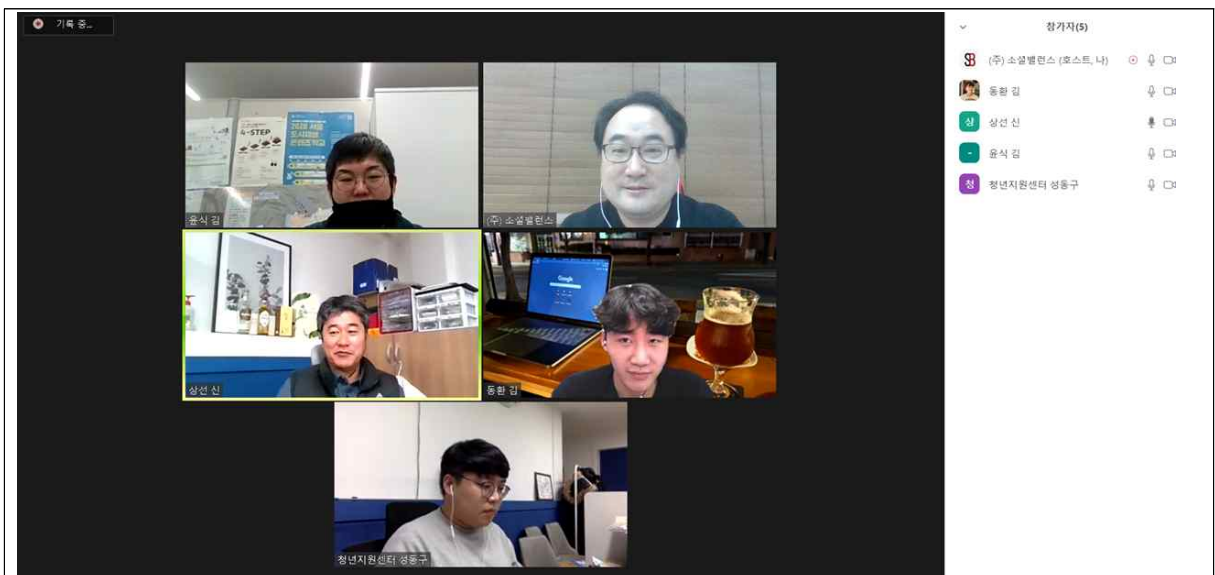
- SB에서 24일 오후 6시에 ZOOM 회의실 개설

② 최종보고회 관련

- 참석자: 5명 이상 참석하기로 의결

- 최종보고서 관련: 24일 세미나자료까지 포함하여 SB에서 작성 및 보고

- 진행 사진



□ 공동이행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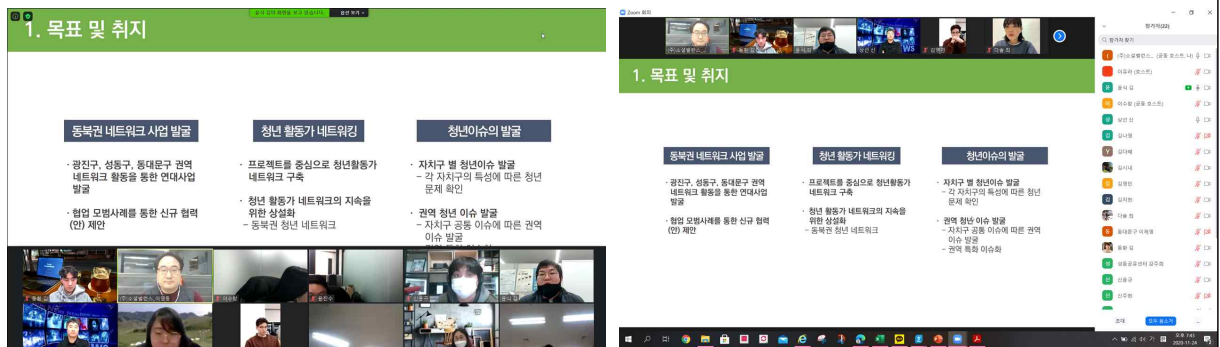
- 일자: 2020년 11월 24일 오후 7시 ~ 9시00분 (2h)
- 참석자: 총 23명
- 주요 내용 : 공동이행프로젝트 계획안 발표 및 자기도전 프로젝트 진행결과 및 계획 공유

▶ 공동이행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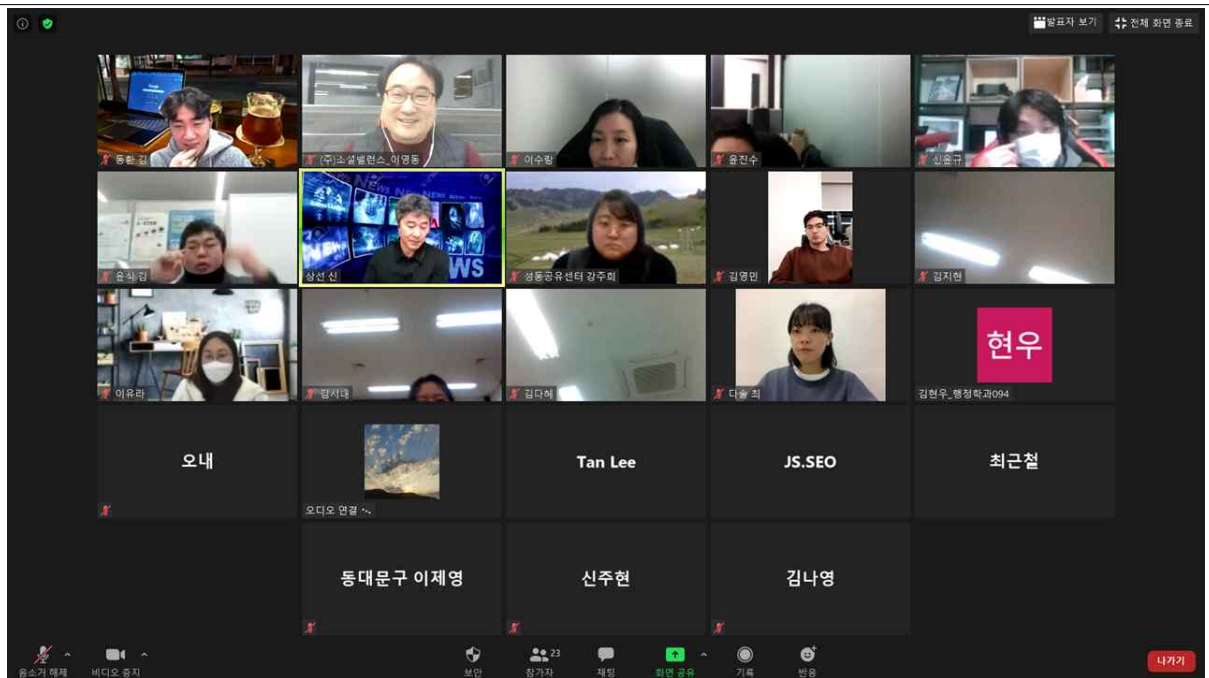
- 제목: 광동성 프로젝트
- 주제: 동북1권 주최 청년 포럼 개최 및 동북1권 청년(활동가) 정기 네트워킹 구축
- 발표자: 동대문구 김윤식 대표 (회기동사사람들)
- 주요내용
  1. 동북1권 청년포럼
    - 목적: 가.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통한 청년 네트워크 구축  
나. 각 자치구 및 동북권 청년이슈 발굴
    - 진행방식
      - 가. 자치구별 청년 포럼 기획단 모집: 청년활동가 주축
      - 나. 기획모임 진행 후 초안 작성
      - 다. 청년참여자 모집: 기획단 외 청년포럼 준비단 구축
      - 라. 포럼 참여자 섭외 등 실무 진행
      - 마. 포럼 진행: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 주제: 청년 이슈 관련 주제, 시민사회 청년활동에 관한 주제
  2. 동북1권 네트워킹
    - 목적
      - 가. 청년 포럼을 기반으로 활동한 청년 활동가들의 정기 모임
      - 나. 발굴된 청년 관련 이슈의 실행 주체 구성
      - 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활동가 양성
    - 진행방식
      - 가. 상반기 청년포럼 기획단 및 준비단을 동북1권 청년 네트워킹 발기인 그룹으로 전환
      - 나. 활동 목적, 방향, 방식 등에 대한 논의 및 활동 계획 수립
      - 다. 정기 모임 진행: 활동계획 진행
      - 라. 하반기 청년 포럼 진행
      - 마. 청년포럼 발굴 의제 해결을 위한 2022년 활동계획 수립

▶ 공동이행 프로젝트 발표 사진 및 발표 자료

발표자: 김윤식 대표 (동대문구 회기동사람들)



ZOOM에서 발표자료 화면공유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최종결과물 발표를 듣는 다양한 모습



< 총 참가 인원 23명 >

▶ 자기도전 프로젝트 진행내용 발표 사진 및 발표 자료

**동대문구 워크맨 프로젝트**  
동대문구 활동가

**프로젝트 방향**

- 활동가 개인적 측면: 개인의 행복한 삶과 사회적 삶
- 활동의 사회적 측면: 시민사회 비영리활동의 이해
- 삼삼: 활동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

**프로젝트 주요내용**

**활동가의 삶 이해**

- 목적:
  - 활동가들과의 관계형성 및 활동가의 공익적 삶에 대한 이해
  - 주요 지역단체의 활동 파악 및 활동가로서의 활동 영역 고민과 확장
- 진행방식:
  - 지역단체 대표 및 지역활동가 인터뷰

**프로젝트 주요내용**

**활동가의 삶 이해**

- 목적:
  - 활동가들과의 관계형성 및 활동가의 공익적 삶에 대한 이해
  - 주요 지역단체의 활동 파악 및 활동가로서의 활동 영역 고민과 확장
- 진행방식:
  - 지역단체 대표 및 지역활동가 인터뷰

**프로젝트 주요내용**

**NPO 활동의 이해**

- 목적:
  - 설립 단체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NPO 활동 이해 제고
  - 지역단체와의 관계형성을 통한 활동 마련
- 활동경험 대상:
  - 회기동사생활: 회기동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형성과 청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단체
  - 일민행동활동: 지역사회의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단체가 견소시 영을 구축하여 활동 중, 운영대표단체인 시민나무 활동 참여
- 진행방식:
  - 각 단체의 주요활동에 단기, 중기적으로 참여
  - 행사 예시: 단기 프로젝트 전세 참여, 주요활동의 1일 1인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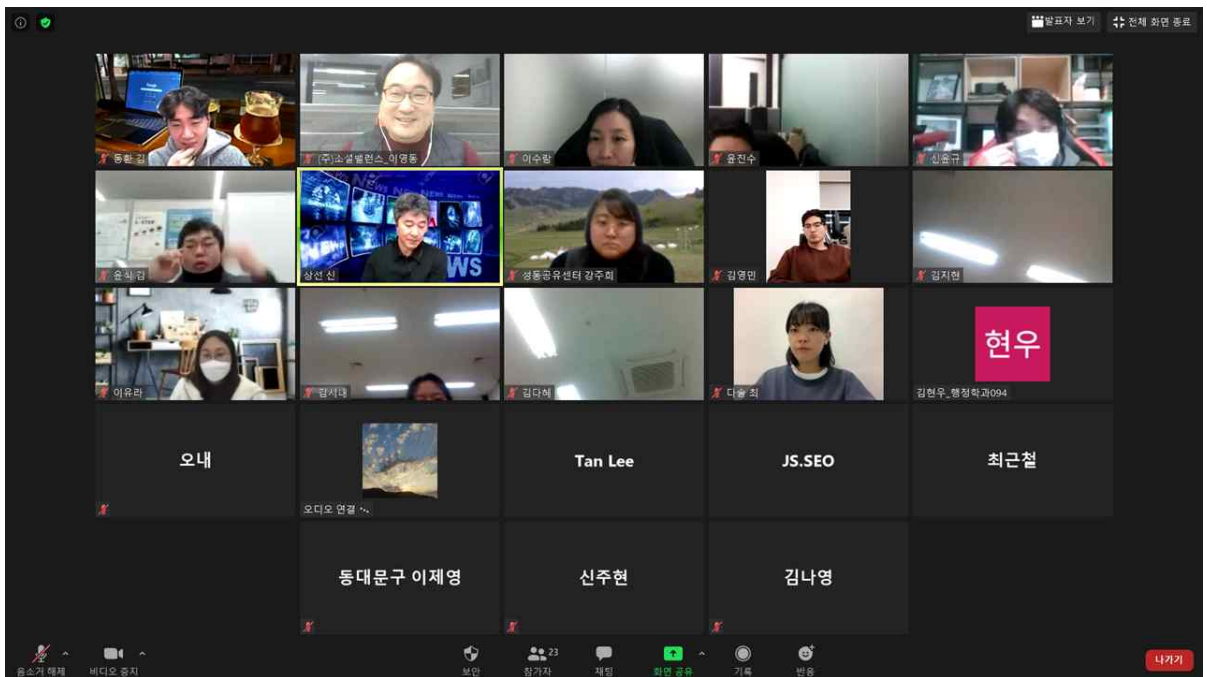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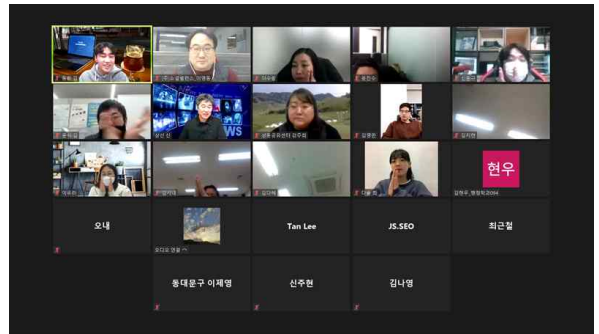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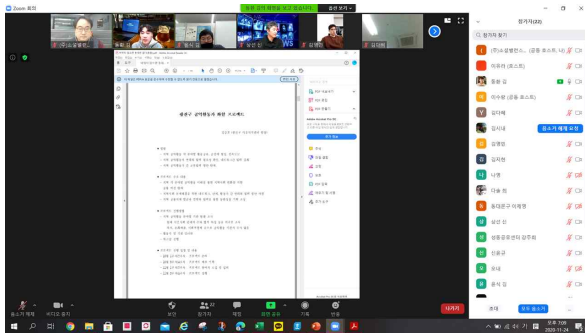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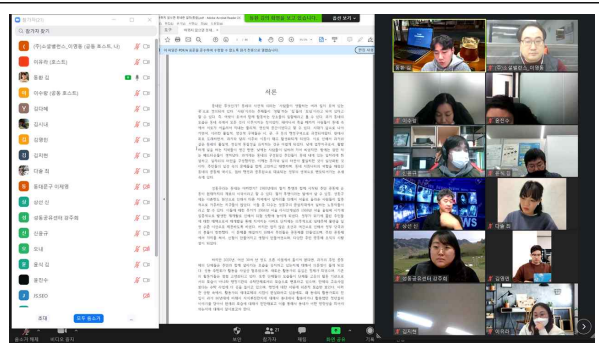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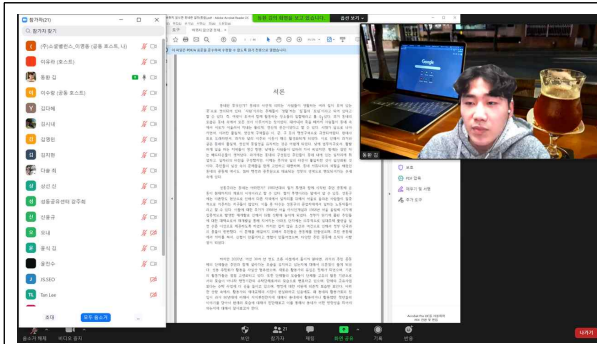
**활동가 인터뷰**

1. 인터뷰 준비 (인터뷰 1주일 전)
2. 활동가 1명 선정 (인터뷰 1주일 전)
3. 인터뷰 질문 리스트 작성 (인터뷰 1주일 전)
4. 인터뷰 진행 (인터뷰 1주일 전)
5. 인터뷰 결과 정리 (인터뷰 1주일 후)

**서론**

바뀌지 않으면 중태란 없다.

김동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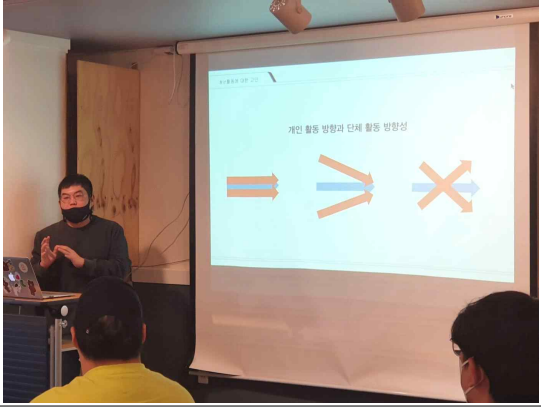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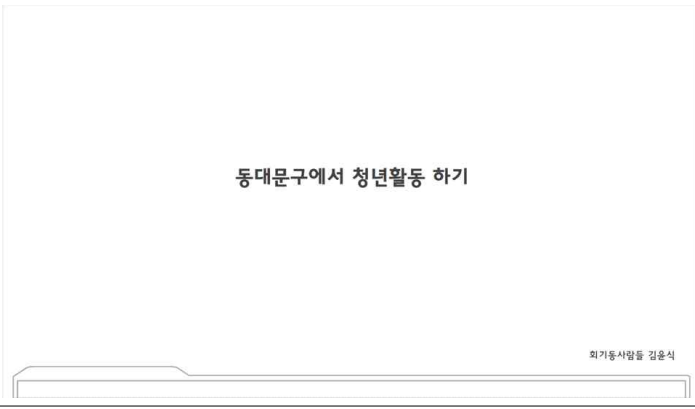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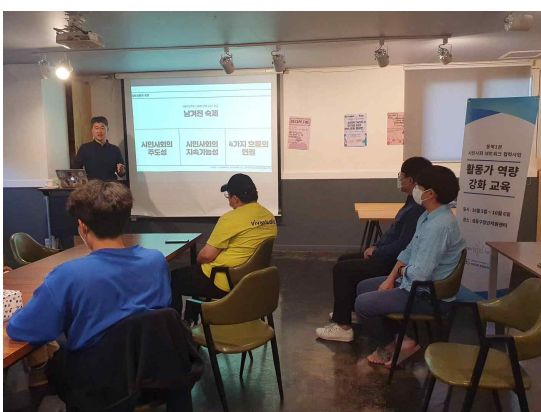

< 총 참가 인원 23명 >

## 2.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세부사업명	주민조직역량강화 교육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 2020년 7월 ~ 9월 중 2일간(각 6시간), 총12시간</li> <li>○ 참여대상 : 자치구별 추천활동가 3인 이상(총15인 이상)</li> <li>○ 시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조직역량강화 교육(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운동론 / 동북1권 시민사회형성 역사이해</li> <li>- 디자인씽킹의 이해 / 퍼실리테이션의 이해</li> <li>- 협업파트너의 발굴 / 연대를 통한 해결 방안 찾기</li> </ul> </li> <li>▶ 주민조직 역량 효능감 관련 참가자 인터뷰</li> </ul> </li> </ul>
사업추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 2020년 10월 5일~6일, 총12시간</li> <li>○ 참여인원 : 각 총 17명_연인원 34명</li> <li>○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활동의 고민과 질문들_(정명우)</li> <li>- 동대문구에서 청년활동 하기_(김윤식)</li> <li>- 언택트 시대의 시민사회조직과 봉사활동_(신상선)</li> </ul> </li> <li>▶ 청년 &amp; 지역 시민사회활동 관련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서의 시민사회 활동 수준에 대한 시각 및 방향성에 대한 탐색</li> <li>- 청년들의 지역내 시민사회활동 현황과 미래에 대한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이 시민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li> </ul> </li> </ul> </li> </ul> </li> <li>○ 추후 진행관련 논의/제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 중심의 교육/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자치구가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제안되어졌으며, 향후 자치구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으로 의결</li> </ul> </li> </ul>

□ 교육 주요 내용\_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 교육 진행 사진\_강사 및 교육안(표지)

주제	강사 (소속)
지역활동의 고민과 질문들	정명우 사무처장 (광진시민허브)
<강사 별 교육 사진>	<교육안 표지>
	
동대문구에서 청년활동 하기	김윤식 대표 (회기동사람들)
<강사 별 교육 사진>	<교육안 표지>
	
언택트 시대의 시민사회조직과 봉사활동	신상선 대표 (성동청년플랫폼)
<강사 별 교육 사진>	<교육안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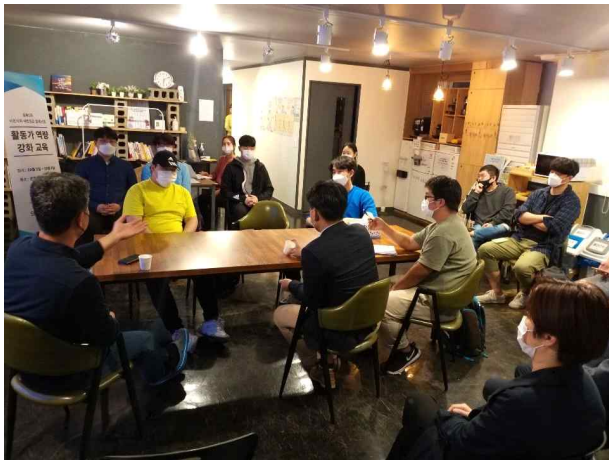
▶ 교육 주요 사진



<참여자 단체사진>



<토론 - 청년들의 시민사회 필요한 것은?>



<토론 - 지역에서의 시민사회 활동 수준>



<토론 - 지역 시민사회 활동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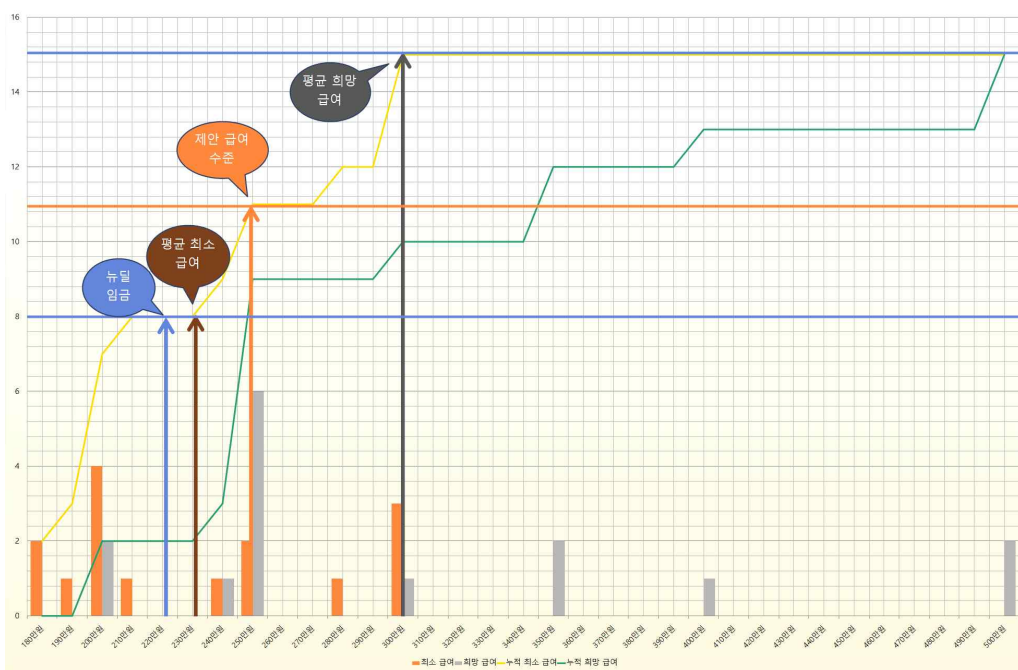
### 3. 활동가 자기도전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세부사업명	자기도전 프로젝트 및 도전프로젝트 성과 공유회 운영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 2020년 9월~11월</li> <li>○ 참여대상 : 자치구별 추천활동가 3인</li> <li>○ 시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가 교육을 통해 발굴된 활동주제를 프로젝트로 진행</li> <li>▶ 자기도전 활동성과 공유(정례회의 시간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상황 공유)</li> <li>▶ 최종성과발표(공동이행계획 세미나에서 발표)</li> <li>▶ 활동가만족도 설문조사(사전/사후)</li> </ul> </li> </ul>
사업추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 2020년 9월 ~ 11월</li> <li>○ 참여대상 : 자치구별 추천활동가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동환(성동청년플랫폼), 최다솔(회기동사람들), 김승호(광진구 마을지원센터)</li> </ul> </li> <li>○ 자기도전 프로젝트 주제(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동구: 바뀌지 않으면 동네란 없다_청년 선배활동가 관련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선배 활동가들의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경험’ 에서 기인</li> <li>• 청년 선배 활동가들의 활동가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적으로 가치를 좇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람</li> </ul> </li> <li>•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이 공익 활동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친숙한 환경 필요</li> <li>: 금전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 but, 사람의 유입이 우선과제임</li> <li>: 활동을 통한 의미 부여가, 금전적 문제 해결보다 우선과제임</li> </ul> </li> </ul> </li> <li>▶ 동대문: 워크맨 프로젝트_동대문구 지역적 특색 파악 및 탐색(활동가의 삶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지역활동가로서 진입을 위한 관계 형성과 활동 탐색하고 활동가의 삶과 활동, 지역 NPO단체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li> <li>• 활동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활동가의 공익적 삶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지역 내 주요단체의 활동을 이해하여 활동가로서 삶에 대해 보다 진진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됨</li> </ul> </li> <li>▶ 광진구: 공익활동가 화합 프로젝트_공익활동가의 협력, 연대,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분야별 대표 활동가들이 지역 전체를 조망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코어그룹(연대체) 형성</li> <li>• 지역사회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제를 논의하고 문제해결력 증진</li> </ul> </li> </ul> </li> </ul>

▶ 자기도전 프로젝트 진행 내용 발표

■ 제목: 바뀌지 않으면 동네란 없다

- 발표자: 성동구 김동환 활동가 (성동청년플랫폼)
- 방향: 동네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 진단 위의 내용을 통해 동네가 어떤 방향성을 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
- 프로젝트 수행 방법: 심층인터뷰\_청년 활동가 5인
- 결론 및 제언
  -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경험에서 기인
  - 활동가에 대한 정의
    - : 공통적으로 가치를 좇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람  
(활동가 자체가 공동체를 위해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
  -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
    - : 금전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언급됨



- : 활동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의의(흥미 호기심 포함)가 담보됨이 필요함
- : 활동의 의욕을 저해하는 행위(활동가에 대한 비난 등)의 근절이 필요
- 윗세대 활동가와 청년 활동가와의 관계
  - :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_아젠다가 다름, 협력의 필요성 인식 X
-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새로운 활동가의 유입의 정체)
  - : 우선 청년들에게 활동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 금전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 다만, 사람이 있어야 이러한 문제의 해결 가능

■ **제목: 동대문구 워크맨 프로젝트**

- 발표자: 동대문구 최다솔 활동가 (회기동사사람들)
- 방향: 지역활동가로서 진입을 위한 관계 형성과 활동 탐색  
활동가의 삶과 활동에 대한 이해  
지역 NPO단체 활동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기반 단체의 활동 이해
- 프로젝트 주요 내용
  - 활동가의 삶 이해
    - 가. 활동가들과의 관계형성 및 활동가의 공익적 삶에 대한 이해
    - 나. 지역 내 주요단체의 활동 파악 및 활동가로서의 활동영역 고민과 확장
  - NPO 활동의 이해
    - 가. 주요 단체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NPO활동 이해 제고
    - 나. 지역단체와의 관계형성을 통한 접점마련: 회기동사사람들, 민민협력플랫폼
- 프로젝트 진행일정 및 진행방법
  - 10월 1주차/2주차 : 프로젝트 준비
  - 10월 3주차/4주차 : 활동가 면담 및 프로젝트 세부 기획(지역조사)
  - 11월 1주차/2주차 : 지역의 이해 진행\_지역특성 파악 및 인터뷰 대상자 선정
  - 11월 3주차/4주차 : 활동가 인터뷰 /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발표
- 진행 소감
  - 활동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활동가의 공익적 삶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지역 내 주요단체의 활동을 이해하여 활동가로서 삶에 대해 보다 진진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됨

■ **제목: 광진구 공익활동가 화합 프로젝트**

- 발표자: 광진구 활동가 김승호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팀장)
- 방향: 지역 공익활동 각 분야별 활동공유, 공감대 형성, 친목도모  
지역 공익활동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 확인, 네트워크간 협력 강화  
지역 공익활동가 간 교류협력 방안 탐색.
-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지역 각 분야별 공익활동 이해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통 비전 탐색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단체, 활동가 간 연대와 협력 방안 마련
  - 지역 공동의제 발굴과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기회 조성
- 프로젝트 진행일정 및 진행방법
  - 10월 1주차/2주차 : 프로젝트 준비
  - 10월 3주차/4주차 : 프로젝트 세부 기획
  - 11월 1주차/2주차 :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및 섭외
  - 11월 3주차/4주차 : 프로젝트 실행(각 분야별 활동 발표 / 지역 공통 비전 마련)

▶ 자기도전 프로젝트 진행 내용 발표

< 자기 도전 프로젝트 진행보고서 >	
<p>바뀌지 않으면 동태만 없다.</p> <p>김정환</p>	<p>서훈</p> <p>동대문</p>
<p>꿈은 잊지 않겠다.</p> <p>광진</p>	<p>성동</p> <p>광진</p>



< 자기 도전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인터뷰 대상자 및 인터뷰 진행사진 >

- 총 8명 심층 인터뷰 진행 (성동, 동대문)
- 민민협력 플랫폼 심소영 대표
- 이가현 청년 활동가
- 조진한 청년 활동가
- 송정동 활동가
- 행당1동 활동가
- 왕십리도선동 활동가
- 행당2동 활동가
- 행당2동 전(前)활동가



민민협력플랫폼 심소영 대표



동대문구 이가현 활동가



동대문구 조진한 활동가

### < 자기 도전 프로젝트 수행 소감 >

낯설고 새로운 공간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을 만나 활동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활동가분들의 삶에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회의 변화를 위한 투쟁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세상이 있기에 가능했고, 내가 지켜나가고 싶은 가치가 뚜렷했기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점이 ‘활동가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저에게도 필요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겪어온 삶은 다른 사람들이 겪어온 삶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겠죠. 저 또한 겪어보지 않은 삶에 대해 다 아는 마냥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내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결혼문제, 육아문제 등 청년문제가 빠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청년문제에 대해 청년이라는 세대를 한 세대로 규정하여 다 아는 마냥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겪어온 청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민들을 품은 채 지역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다솔 활동가 (동대문, 회기동사람들)



### Ⅲ. 사업평가

#### 1. 사업평가

##### 1) 사업결과

사업명	정량지표	사업결과
권역 내 자치구별 Connection Point 구축	• 정례회의 5회 (월1회)	• 정례회의 5회 진행
	• 정례회의 참가자 5명/월_(총25명)	• 정례회의 참가자_총 27명
	• 세미나 1회	• 세미나 1회 진행
	• 참가자 20명	• 참가자 23명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12시간 교육과정 운영	• 12시간 교육과정 운영
	• 참가자 인원 15명 이상	• 참가자 인원 17명, 연인원 34명
	• 참가자 만족도 80점 이상	• 참가자 만족도 91점
활동가 자기도전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 활동 만족도 증대	• 사전 조사 대비 70점 결과는 95점
	• 3개 자기도전 프로젝트 개시	• 3개 자기도전 프로젝트 개시 - 1개 프로젝트 완료 (성동) - 2개 프로젝트 진행 (광진, 동대문)

##### 2) 사업성과

- ‘권역 내 자치구별 Connection Point 구축’ 은 ① 2021년 권역공동 행동계획 수립, ② 권역 내 활동가 연대 필요성 인식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함
- ▶ ① 2021년 권역공동 행동계획 수립은 ‘광동성 프로젝트’ 라는 명칭으로 권역 청년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권역 내 청년활동가들의 유기적인 연대/협력/네트워크와 신규 청년 활동가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계획이 수립됨
  - ▶ ② 권역 내 활동가 연대 필요성 인식 증진은 정례회의의 참여자가 늘어나는 것과, 참여활동가들의 특성이 증대되는 모습 등을 통해 연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여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청년활동가 유입 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수렴되는 모습을 통해 연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조직역량 효능감 증진이라는 목표가 잘 달성되었음
  - ▶ 지역활동을 하며 가지고 있던 고민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급속한 환경변화, 청년활동가로서 살아가는 것에서의 고민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주민조직, 지역조직이 나아가야 하는 활동의 수준과 시각, 방향성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음
  - ▶ 토론과 활동가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활동가로서의 삶에 대한 의미가 강화되었으며,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활동가 개인을 넘어 조직차원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효능감)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음
  
- 활동가 자기도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예비(청년)활동가들이 활동가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공익활동가로서 어떻게 협력/연대/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탐색 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함
  - ▶ 3개의 활동가 자기도전 프로젝트가 개시되었으며, 1개의 프로젝트는 최종완료, 1개의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3개의 프로젝트 개시라는 1차적인 목표는 달성되었음
  - ▶ 3개의 프로젝트는 ①청년이 활동가로서의 삶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활동가로서 잘 자리잡아 나갈 수 있는 경로는 확인하는 프로젝트와 ②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프로젝트, ③활동의 현장에서 연대/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화합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탐색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됨

## 2. 사업운영 평가

### (1)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

구분	일정	참여자	방식
모니터링	07. 22	• 사업책임자 1인, 사업실행자 2인	• 참가자 인터뷰
	08. 02	• 사업실행자 2인	• 참가자 인터뷰
	09. 23	• 사업실행자 2인	• 참가자 인터뷰
	10. 06	• 사업책임자 1인, 사업실행자 3인	• 교육참여자 인터뷰
	11. 24	• 사업책임자 1인, 사업실행자 2인	• 활동가 만족도 조사(인터뷰)
평가	11. 25	• 사업책임자 1인, 사업실행자 3인	• 전체사업 리뷰 / 결과보고서 리뷰



(2) 과정평가

- 본 사업의 추진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책임 용역수행기관인 소셜밸런스를 중심으로 동북1권 자치구별 시민사회기관으로 사단법인 광진시민허브(광진구), 사단법인 푸른사람들(동대문구), 성동청년플랫폼(성동구)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 (주)소셜밸런스는 본 프로젝트에서 책임 기관으로 프로젝트 총괄, 일정관리, 예산집행, 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하여, 동북1권 NPO의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는 본 사업에서 지원자(supporter)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
  - ▶ 성동청년플랫폼, 사단법인 광진시민허브, 사단법인 푸른사람들 등 각 자치구 시민사회기관들은 함께 권역 NPO 협력에 대한 회의체를 구성/운영을 통해 각 자치구에서 프로젝트의 진행과 관련된 의견수렴 및 연대활동에 대한 홍보/모집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의 목표 대비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에 기여하였음
  - ▶ 각 자치구별 시민사회기관들은 자치구 내에서 시민사회의 허브기관으로, 중추적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와 동북1권역 등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그림> 사업추진체계



- 사업기획과정과 사업실행과정에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일정을 맞추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과의 공식/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할 수 있었음
  - ▶ 사업실행 초기, 사업책임자와 사업실행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일정부분에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 존재하였음. 사업참여자가 증가하면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분산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

- ▶ 초기 불명확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분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사업진행 초기 사업실행 일정 선정 등에서 다소 간의 어려움이 있었음. 해당 어려움 등은 SNS를 활용한 소통과 소통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실행자 선정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음
  -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사업을 실행함에 따라 증가하여 역할과 책임을 분산할 수 있었음. 특히, 회의록 작성, 사진촬영 등 작은 역할까지 분산되면서 사업실행자들이 핵심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사업의 운영에 대한 변동성이 높았음에도 동북 1권역 시민사회의 주요 활동가들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음
- ▶ 매월 진행하고자 하였던 권역 회의체의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음
  - ▶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의 경우, 초기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형성을 목적으로 제주도 2박3일 워크샵에 대한 기획이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방식으로 급격히 변경 진행되었음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측면에서의 변경 진행)
  - ▶ 공동이행계획 발표, 자기도전프로젝트 발표가 진행된 공동이행계획발표세미나의 경우, 코로나19의 심각성 증대로 인해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어 진행됨
- 활동가 자기도전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진행 활동가 선정일정이 연기되는 등의 사업시행과정 상의 변동이 다소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3개의 자기도전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음
-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되면서, 상호연결되어 있던 자기도전 프로젝트 진행활동가의 선정일정이 연기되었음
  - ▶ 자기도전 프로젝트의 세부 진행에서 활동가에 대한 인터뷰 등의 과정이 포함되며, 코로나19 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뷰 일정 변경 등이 수반되었음
  - ▶ 청년들의 시민사회 활동가로서의 유입과 시민사회에서의 연대/협력/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했던 3개의 자기도전 프로젝트가 개시하게 됨
- 모니터링과 평가과정
- ▶ 모니터링 과정은 사업책임자와 사업실행자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됨. 다만, 모니터링을 진행한 시점/사람마다 관점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여, 일관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존재함
  - ▶ 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사업책임자와 사업실행자 등 사업참여자들의 참여를 통해 최종평가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함

## IV. 사업의 효과 및 향후 계획

### 1. 사업의 효과 및 향후 계획

- 시민사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공익활동에 대한 청년들의 유입/증대 될 것으로 예상됨
  - ⇒ 자기도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활동가와 공익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진 청년활동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함
  - ⇒ 공동이행계획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광동성프로젝트(권역 청년포럼 개최 등)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청년들의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사업을 통해 권역내 활동가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해보는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권역 활동가들의 유기적인 연대/협력/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진행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목표대비 동북1권 활동가의 참여수준이 높음
  - ⇒ 광동성 프로젝트를 통해 권역 중심의 청년활동가들의 연대활동 강화가 권역내 기관들의 연대와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 동북1권 활동가들이 자치구별로 돌아가며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청년들과의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함
  - ⇒ 향후 권역 내 네트워크와 청년 세대와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 자기도전프로젝트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청년들에게 공익활동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권역 내에서 기획/운영(One-day 인터십 등)할 예정임
  
- 향후, 본 프로젝트에서 구축된 회의체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권역 내부에서 의제중심별, 세대별 모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첨부자료

① 광동성프로젝트 결과물	29
② 자기도전프로젝트 결과물	34
③ 역량강화 교육 강의안	46

#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프로젝트(안)

## 1. 목표 및 취지

### 동북1권 네트워크 사업 발굴

-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권역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연대사업 발굴
- 협업 모범사례를 통한 신규 협력(안) 제안

### 청년 활동가 네트워킹

-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의 지속을 위한 상설화
  - 동북권 청년 네트워크

### 청년이슈의 발굴

- 자치구 별 청년이슈 발굴
  - 각 자치구의 특성에 따른 청년 문제 확인
- 권역 청년 이슈 발굴
  - 자치구 공통 이슈에 따른 권역 이슈 발굴
  - 권역 특화 이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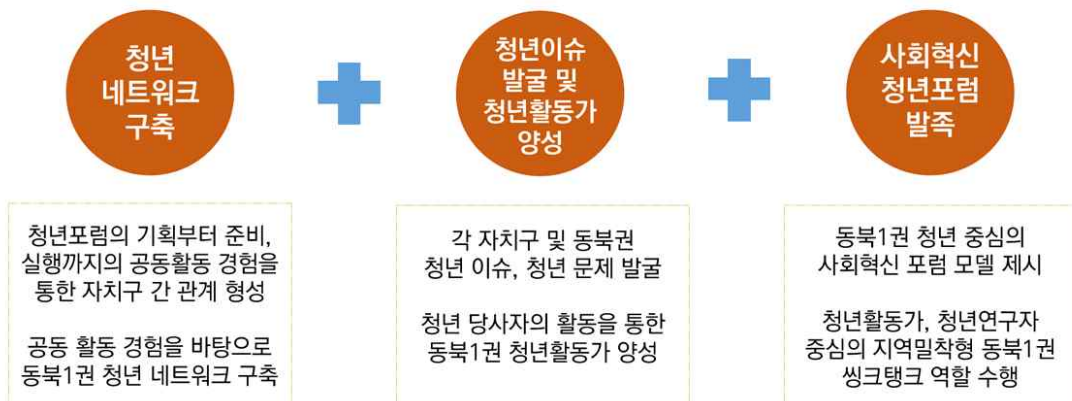
## 2. 프로젝트 개요

- 1 프로젝트명: 광동성 프로젝트(가칭)
- 2 기간: 2021년 시행
- 3 내용
  - 1)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공동 주최 청년포럼 진행
  - 2) 동북1권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및 정기화
- 4 주최: 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3

## 2. 주요내용

### 동북1권 청년포럼



4

## 2. 주요내용

### 동북1권 청년포럼

진행계획(안)

- 1 자치구별 청년포럼 기획단 구성  
- 각 자치구별 청년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네트워크 활성화
- 2 정기 기획모임 진행 후 청년포럼 세부계획 초안 완성  
- 청년 이슈 관련 주제, 시민사회 청년활동에 관한 주제
- 3 청년포럼 준비단 모집  
- 청년활동가 외에 청년 이슈, 청년 포럼에 관심 있는 청년 연구자, 일반 청년의 참여 유도
- 4 포럼 참여자 섭외, 실행 준비 등의 실무 진행
- 5 동북1권 청년포럼 진행
- 6 평가 및 환류, 정착화 추진

5

## 2. 주요내용

### 동북1권 청년 네트워크



6

## 2. 주요내용

### 동북1권 청년 네트워크

- 1 2021 상반기 청년 포럼 기획단, 준비단을 동북1권 청년 네트워크 발기인 그룹으로 전환
- 2 청년 네트워크 발족 계획 수립  
- 활동 목적, 방향, 방식 등에 대한 논의 및 활동 계획 수립
- 3 청년 네트워크 발족 및 정기 모임 진행  
- 대표진 선출, 상시적 활동 및 청년포럼 준비
- 4 2021 하반기 청년 포럼 및 상시적 활동 진행
- 5 2021 진행 내용 평가 및 2022년 활동 계획 수립  
- 총회 등 준비

7

## 3. 일정계획(안)

2021. 01 ~ 02

기획모임  
진행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공동성 프로젝트> 기획모임  
진행

2021. 03 ~ 06

청년  
포럼

3월: 청년 포럼 기획단 구성  
4월: 준비단 모집/계획 완성  
5월: 포럼준비  
6월: 청년 포럼 개최

2021. 07 ~ 08

청년  
네트워크  
준비

7월: 발기인 구성  
8월: 청년 네트워크 발족

2021. 09 ~ 12

청년  
네트워크  
활동

9월: 청년 포럼 준비 및  
상시적 활동 시작  
10월~11월: 청년 네트워크  
활동  
12월: 청년 포럼 개최  
사업평가/2022 계획 수립

8



## 4. 기대효과

### 동북1권 청년 사회혁신 네트워크 구축

- 자치구 간 협력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를 동북1권 청년 사회혁신 그룹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청년 포럼의 공론과정, 숙의과정의 결과물을 실천하는 혁신 그룹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 권역 싱크탱크로써의 청년 포럼

- 각 자치구별 청년 이슈를 넘어서 권역 단위의 청년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논의하는 공론장 형성 기대
- 정기적인 청년 포럼을 통해 청년 이슈 외 권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 형성

### 느슨한 연대를 통한 권역 청년 활동가 발굴

-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느슨한 연대활동으로 각 자치구를 넘나드는 청년 활동가 발굴 기대
- 권역 단위 프로젝트 활동으로 동북1권의 청년 활동가 협력 사례 발굴

9

**감사합니다.**

■ 제목: 바뀌지 않으면 동네란 없다

- 발표자: 성동구 김동환 활동가 (성동청년플랫폼)
- 방향: 동네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 진단 위의 내용을 통해 동네가 어떤 방향성을 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
- 프로젝트 수행 방법: 심층인터뷰\_청년 활동가 5인

바뀌지 않으면 동네란 없다(보고서\_요약문)

김동환 활동가(성동청년플랫폼)

동네란 무엇인가? 동네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다. ‘사람’이라는 주체들이 ‘생활’하는 ‘집’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여럿이 모여서 함께 활동하는 장소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동네의 모습은 동네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장이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동네 속에서 서로가 어울려서 지내는 물리적, 정신적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대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물질적, 정신적 구역들은 시, 군, 구 등의 행정구역으로 규정되어왔다. 현대사회로 도래하면서, 과거와 달리 이주와 이동이 매우 활성화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동네의 물질적, 정신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낮에 업무지구로서, 활발하게 일을 하는 지역들이 생긴 반면, 낮에는 사람들이 일하러 가서 비었지만, 밤에는 잠만 자는 베드타운들이 생겨났다. 과거에는 동네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동네 내에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일자리의 터전을 구성했지만, 이제는 주거와 일의 터전이 불일치한 것이 일상화된 것이다. 주민들의 일상 속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대변하며, 동네 커뮤니티의 역할을 해왔던 동네의 공동체 역시도, 점차 행정과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영역으로 변모되어가는 추세 속에 있다.

성동구라는 동네는 어떠한가? 1980년대의 철거 투쟁과 함께 시작된 주민 공동체 운동이 현재까지의 계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철거 투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성동구에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구들이 많았다. 이들 중 다수는 성동구의 공업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주거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재개발로 인해서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가 위기에 몰린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개발을 통해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쉽지 않은 조건과 여건으로 인해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빈번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주민 공동체에서 가치를 쳐서, 신협이 만들어지고 생협이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주민 공동체 조직의 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2020년, 어언 30여 년 정도 흐른 시점에서 돌이켜 본다면, 과거의 주민 공동체의 단체들은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게 되었다. 성동 주민회가 활동을 사실상 멈추었으며, 새로운 활동가의 유입은 정체가 되었으며, 기존의 활동가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또한 단체들의 모습들이 단체들 고유의 활동 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수탁단체로서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단체의 고유사업보다는 수탁 사업에 더 공을 들이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지원에 의존적 모습만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활동가의 세대교체의 시점이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왜 동네의 활동가로의 진입이 과거 80년대에 비해서 지지부진한지에 대해서 동네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진단해보고 이를 통해서 동네가 어떤 방향성을 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조사를 봄에 앞서서, 조사자에 관한 이야기로 우선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본다. 인터뷰를 쓰고 해석하면서 필연적으로 본인의 시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참고를 부탁드린다. 본인은 활동에 대해서 접하게 된 계기는 한양대학교에 입학하고 학교를 둘러보던 중에 발생했다. 그날 본인이 보게 된 것은 키다리은행이라는 단체가 쓴 대자보였다. 대학생에 대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금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였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가면 할 수 있을 일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대학 생협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이윤을 조합원과 공유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었다. 그날이 키다리은행과의 만남의 시작이었다. 대학생들이 대학생들 서로를 돕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키다리은행에 빠져들었고, 하이쿵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을 보고 대학교 생활협동조합과 대학교 금융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는 꿈에 부풀어 올랐었다. 그 거대한 꿈속에서 키다리은행의 2대 이사장에 선출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돌아가지 못했고 녹록지도 못했다. 키다리은행이 꿈꾼 그림의 시작이었던 앱은 실패로 돌아갔고, 하이쿵 협동조합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키다리은행은 조합원과 운영진 간의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고, 하이쿵 협동조합 역시도 학교 내 규제에 인해서 결국 그 원동력을 잃었다. 키다리은행의 원동력을 살리고자, 활로를 모색하러 다녔다. 이사장에 처음 취임했을 때, 전 이사장님의 소개를 통해서 당시 시민협력플랫폼 신상선 반장님(이하 신반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키다리은행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지역의 대학과 지역 간의 접점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서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매우 부족했다.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역시 지자체에 구축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보아온 활동도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조직에 불과했으며, 농활 정도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대학생이라는 자원은 시민사회에서 끌어다 쓰는 힘이었고, 대학생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곳이 지역에는 없었던 것이라 봐도 무관할 것이다. 다행히도 성동구는 달랐다. 성동 청년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반장님도 그러하였고, 당시 청년 활동가 새내기로 활동을 시작한 김영민이라는 청년도 그러하였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청년 축제와 청년도전 사업이 그 예시였다. 키다리은행 역시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대학생 청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개인적으로도 성동 청년 플랫폼과 함께 청년 축제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해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활동가가 왜 금전적 보상이 충분하지 못함에도 지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키다리은행 역시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한양대학교를 넘어선 타 대학으로의 확산을 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키다리은행 간의 연합회를 만들어 키다리은행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키다리그룹을 만들었다. 하지만 키다리은행을 만드는 사업은 쉽지 않았고, 난관의 연속이었다. 학생복지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립대학교 키다리은행, 학과 교수님의 지원으로 시작된 단국대학교 키다리은행, 학과 학생회와 신협 전무님이 만나서 시작한 건국대학교 키다리은행 모두 흔들렸다. 활동에 대한 보람이 없으니 활동에 대한 회의도 같이 오게 되었다. 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왜 한양대학교 키다리은행처럼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이사장을 그만두고 전념함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에는 지속가능성이 문제였다. 키다리은행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을 무렵, 신반장님이 시민협력플랫폼을 반납할 즈음 시작하신 지속가능고민기획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고민은 '지속가능성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였다. 모든 활동가가 공통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는 금전의 이야기였다. 금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워크숍을 통해서 광진구의 사회적경제의 모델을 통해서 지역 자산화를 통한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꾀하는 모델을 알게 되었고, 지속가능고민기획단은 지역 자산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했다. 이를 위한 노력 중에는 유명무실화되어 버린 성동주민회를 끌어안으려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지역 원로 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린 결론은 거부였다. 성동 주민회가 유명무실화가 되었기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이 눈에 보였고, 당사자들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고민기획단은 성동주민회를 대신할 수 있는 지역주민재단을 만들어서 재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자산화를 해결하자는 논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무경찰로서, 지역사회에서의 휴식기를 갖게 되었다.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다. 그리고 2020년 7월 제대를 하고 청년 활동가들의 모습을 보았다. 지역사회의 모습은 2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침체한 모습이 그대로였다. 2년 전이나 2년 후나 과거 영광의 이름 속에서 맞이하는 황혼기의 모습이였다.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떤 청년 활동가들이 지역을 떠났다, 어떤 단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들이었고, 들리지 않는 것은 주민 공동체들의 활동 소리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동주민회의 향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궁금했다. 2년 동안 새롭게 등장한 청년 활동가들과 기존 주민 공동체들에서 활동가들의 소리가 궁금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동네가 바뀌어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도 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자면 활동에 참여한 계기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활동에 접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동에 입문하게 되었다. 또한 부모님이 활동에 참여하였거나 활동에 관련이 있을 때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동을 접한 시간이 이르면 이룰수록 활동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흥미나 호기심을 느낀 경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인들의 권유가 참여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가치를 좇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활동가 자체가 공동체를 위해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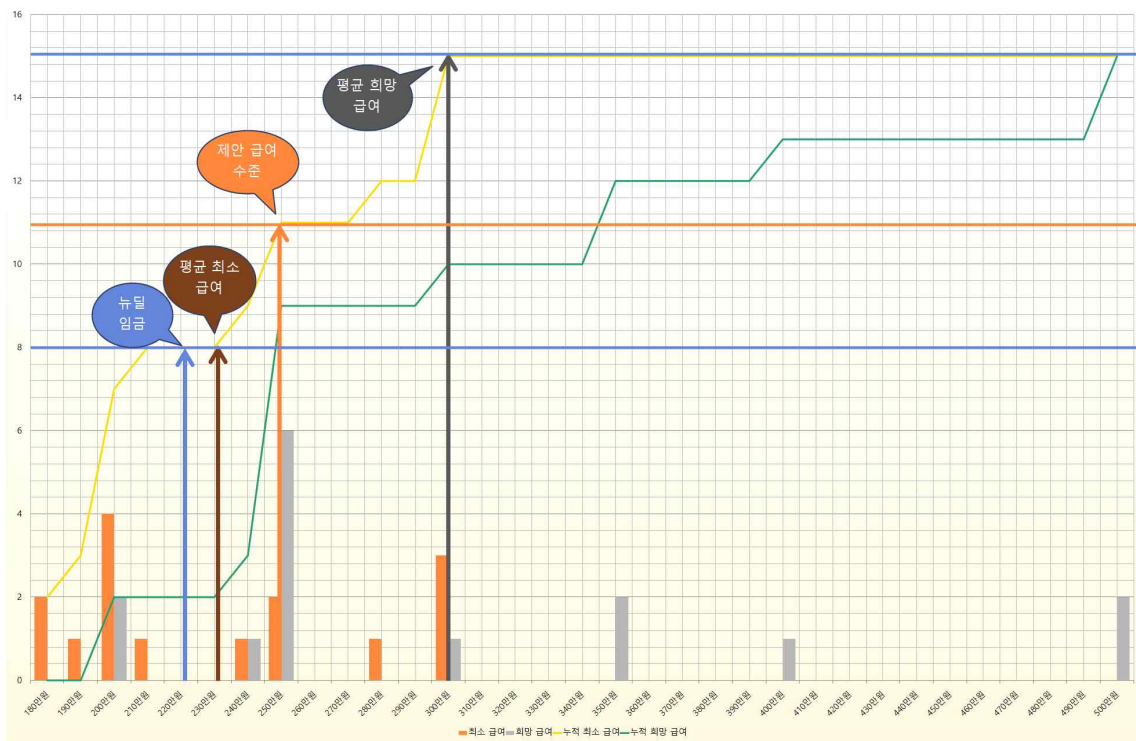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었으며, 활동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의의(흥미 호기심 포함)가 담보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활동의 의욕을 저해하는 행위(활동가에 대한 비난 등)의 근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윗세대 활동가와 청년 활동가와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서로의 배경 상황이 다르므로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굳이 함께 활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젠다 자체가 다르기에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윗세대 활동가의 원동력 자체가 고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방해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 역시 보였다. 윗세대 활동가들이 달린 사회적 성향을 바탕으로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모습들이 보였으며, 활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활동에 대해서 참여를 원하면서도, 순혈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활동가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활동가의 이탈을 유발하는 경우도 보였다.

활동가에 대한 추천 여부에 관해서, 반 이상의 활동가의 경우 활동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경험하길 권하고 있으나 지역 윗세대 활동가와 함께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경우는 추천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리는 경우도 있었다.

행정에 대한 인식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과 느리고 굼뜨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예산 제약 등 융통성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처음 예상한 행정의 침투로 인한 문제의 목소리는 없었다. 오히려 행정의 확장으로 인한 대체에 대해서 환영하는 모습도 있었다.

위 본 프로젝트의 목적인 '새로운 활동가의 유입은 정체가 되었으며, 기존의 활동가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또한 단체들의 모습들이 단체들 고유의 활동 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수탁단체로서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단체의 고유사업보다는 수탁 사업에 더 공을 들이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지원에 의존적 모습만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활동가의 세대교체의 시점이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왜 동네의 활동가로의 진입이 과거 80년대에 비해서 지지부진한지에 대해서 동네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진단해보고 이를 통해서 동네가 어떤 방향성을 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선 공통적으로 꼽힌 문제점은 금전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활동가들은 급여의 수준이 부족한 것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활동 조직들이 지원기관의 수탁을 하는 것에 공들인다고 생각된다. 전업 활동가와 비교해서 수탁 시설의 직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면 안정적인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급여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활동가들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15명의 청년들(활동가 및 중간지원조직 근무자 포함)에게 활동가를 할 경우, 최소 수준의 급여 요구사항과 희망 급여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소 수준의 급여 요구사항의 경우 월 180만 원이 2명이었으며, 190만 원이 1명, 200만 원이 4명, 210만 원이 1명, 240만 원이 1명, 250만 원이 2명, 280만 원이 1명, 300만 원이 3명으로 나타났다. 희망 급여 수준의 경우 200만 원이 2명, 240만 원이 1명, 250만 원이 6명, 300만 원 1명, 350만 원 2명, 400만 원 1명, 500만 원 2명으로 나타났다.

최소 급여 수준은 평균 월 23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급여 수준은 평균 월 302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최소 급여 수준의 평균은 서울시 생활임금인 223만 6,720원보다 3.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8명)이 전업 활동가로서 활동할 최소 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은 수(2명)의 사람만이 희망 급여 수준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급여 수준의 평균을 적용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희망 급여 수준의 평균을 선택할 경우 설문 조사자 전부(15명)가 근로가 가능한 임금 수준이며, 다수(10명)의 조사자가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뉴딜 임금과의 임금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사이에 위치한, 223만 원 7천 원에서 11.7% 정도(26만 3,000원)를 보탠 2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절반 이상의 사람들(8명)이 250만 원 수준의 급여라면 만족하고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사람들(12명)이 250만 원 수준의 급여라면, 전업 활동가로서 활동할 최저임금 수준을 만족한다고 보인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뉴딜 일자리와 함께 활동가를 위해서 뉴딜 일자리 임금 기준 12% 정도의 자금이 더(26만 3,000원) 활동 단체에서 활동가에게 지원한다면, 청년들의 금전 문제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동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우선 청년들에게 활동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동에서의 문턱을 낮춘다면 더 많은 활동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활동의 경험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활동에 대한 보람 역시 느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활동가를 더 많이 늘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네의 활동가로의 진입이 과거 80년대에 비해서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동네 출신의 활동가의 경우, 닫힌 사회의 폐해가 크게 나타난다. 닫힌 사회로 인해서 동네 출신의 활동가가 통겨지고 상처받고 있으므로, 닫힌 사회를 만들고 조장한 윗세대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닫힌 사회를 만들고 있는 활동가들이 말로만 세대교체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간섭을 그만두고 2선으로 물러나서, 청년 활동가의 자문에 대해 조언을 하는 역할과 함께, 활동가에 대한 응원이 필요하다. 청년 활동가 역시, 윗세대 활동가에 대해서 지속해서 현재 활동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윗세대 활동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홈커밍데이 처럼 활동에 대한 소개를 정례화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윗세대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청년 활동가들의 경우, 윗세대와의 결합은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현재의 청년 활동가의 시각에서 볼 때, 동네의 조직들은 현재 아젠다와 맞지 않으며, 기존 아젠다들의 경우 충족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결합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년 동안 고민한 본인의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한다.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우선, 한양대학교 키다리은행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키다리은행들은 지속가능성을 잃고 활동을 중단했다. 키다리은행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자조 금융 조직들이 활동을 중지하였다. 무엇이 차이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여 보았다. 돈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키다리은행이 키다리그룹을 통해서 함께 지원사업을 받아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자조 금융 조직들이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 그 기간 동안 그 어떠한 단체도, 재무적 지속 가능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키다리은행은 남아있다. 어떻게 남아있을까? 재무적 지속 모델은 조직 생존의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무적 지속 모델을 만들어내더라도, 재무적 지속 모델이 흔들리게 된다면 조직은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키다리은행은 이를 극복해내었다. 새로운 대학생의 유입에 친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키다리은행의 이사장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활동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열린 문을 열고, 경험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그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본인이 있었을 때 제안했지만,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지속가능성 문제란 재무적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재무와 사람 모두의 문제였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활동에 지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재무적 흐름 역시도 중요하다. 재무적 지속 모델로 위 수탁 시설들을 보유한 조직이라도, 이 위수탁시설이 흔들리고, 새로운 활동가의 진입에 친화적이지 못해서 활동가들이 튕겨 나간다면, 조직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재무, 사람 어느 하나 놓치고 갈 수는 없다. 금전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활동은 지속가능성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 금전적 문제가 문제로 대두될 수 있었던 것은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금전적 문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무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대시 혹은 터부시 하는 활동가들을 많이 보아왔다. 재무적 이윤 추구가 자체가 문제적 행위라고 하는 것 역시 보았다. 하지만 재무적 이윤 추구는 조직의 지속을 위해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터부시하고, 적대시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면, 조직은 지속가능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네는 경험을 위한 장을 열어놓고 문턱을 없애서 경험치를 쌓는 초심자 친화 문화를 구축하여,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년 활동가들이 동네에 맞는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지원기관 등의 수탁을 포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말로만 세대교체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닫힌 사회를 열어서 청년 활동가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 활동가의 활동 의의를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활동에 대해서 응원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면 청년 활동가의 유입은 늘어나고, 기존의 청년 활동가들의 유출은 줄어들게 되어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재무적 지속가능성도 끊임없이 고민 해야한다.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네는 끊임없이 고민해야한다. 그래서 동네는 살아남기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



■ 제목: 동대문구 워크맨 프로젝트 (공동이행세미나 발표자료)

■ 발표자: 동대문구 최다솔 활동가 (회기동사람들)

■ 방향: 지역활동가로서 진입을 위한 관계 형성과 활동 탐색 / 활동가의 삶과 활동에 대한 이해  
지역 NPO단체 활동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기반 단체의 활동 이해



프로젝트  
방향

- 1 지역활동가로서 진입을 위한 관계 형성과 활동 탐색
- 2 활동가의 삶과 활동에 대한 이해
- 3 지역 NPO단체 활동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기반 단체의 활동내용 이해

## 프로젝트 방향

### 활동가 개인적 측면

개인의  
행복한 삶과  
사회적 삶

### 활동의 사회적 측면

시민사회  
비영리활동의  
이해

### 활동가의 삶

활동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

## 프로젝트 주요내용

### 활동가의 삶 이해

#### · 목적

- 활동가들과의 관계형성 및 활동가의 공익적 삶에 대한 이해
- 주요 지역단체의 활동 파악 및 활동가로서의 활동 영역 고민과 확장

#### · 진행방식

- 지역단체 대표 및 지역활동가 인터뷰
-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에세이 작성

## 프로젝트 주요내용

### NPO 활동의 이해

- 목적
  - 주요 단체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NPO 활동 이해 제고
  - 지역단체와의 관계형성을 통한 접점 마련
- 활동경험 대상
  - 회기동사람들: 회기동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형성과 청년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단체
  - 민민협력플랫폼: 지역사회의 민민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시민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활동 중. 운영대표단체인 시민나루 활동 참여
- 진행방식
  - 각 단체의 주요활동에 단기, 중기적으로 참여
  - 방식 예시: 단기 프로젝트 전체 참여, 주요활동의 1일 인턴십 등

## 프로젝트 진행경과

- 1 프로젝트 준비 10월 1~2주차
- 2 활동가 면담 및 프로젝트 세부 기획
  - 오리엔테이션 및 면담: 2020. 10. 13(화) 18시
  - 10월 3주차 ~ 10월 4주차: 세부 기획 및 지역 조사
- 3 11월 1~2주차 지역의 이해 진행
  - 동대문구 지역적 특색 파악 및 인터뷰 대상자 탐색
- 4 11월 13일: 이가현 활동가 인터뷰  
11월 24일: 이문모아 대표 인터뷰



■ **제목: 광진구 공익활동가 화합 프로젝트 (공동이행세미나 발표자료)**

■ 발표자: 광진구 김승호 활동가(광진구 마을자치센터 팀장)

## 광진구 공익활동가 화합 프로젝트

■ **방향**

- 지역 공익활동 각 분야별 활동공유, 공감대 형성, 친목도모
- 지역 공익활동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 확인, 네트워크간 협력 강화
- 지역 공익활동가 간 교류협력 방안 탐색.

■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지역 각 분야별 공익활동 이해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통 비전 탐색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단체, 활동가 간 연대와 협력 방안 마련
- 지역 공통의제 발굴과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기회 조성

■ **프로젝트 진행방법**

- 지역 공익활동 분야별 기관 현황 조사  
: 현재 시민사회 단체의 수와 법적 특성 등을 위주로 조사  
: 복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순으로 공익활동 기관의 수가 많음
- 활동가 및 기관 인터뷰
- 워크숍 진행

■ **프로젝트 진행 일정 및 내용**

- 10월 1주차/2주차 : 프로젝트 준비
- 10월 3주차/4주차 : 프로젝트 세부 기획
- 11월 1주차/2주차 :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및 섭외
- 11월 3주차/4주차 : 프로젝트 실행  
(각 분야별 활동 발표 / 지역 공통 비전 마련)

(1) 지역활동의 고민과 질문들 / 정명우 사무처장 (광진시민허브)

**지역활동의 고민 & 질문들**  
주변 환경 / 오늘 자리 왜? / 지역활동 / 공동분모

**1.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 나의 성장을 조직(지역)이 담보해주고 있는가?
- 활동가 성장을 한 단체가 담보하기 어렵다면 어떤 협업이 필요한가?
- 나는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가?
- 나는 행복한가? 주변은 행복한가?

## 2. 지역활동가의 재생산 구조 마련은?

- 지역활동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가 ?
- 열정페이 ? 기본생활보장 ?
- 지역활동의 비전 ?

## 3. 지역운동에서는 다양한 시도,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정책 수행(공모사업)에 급급한건 아닌지?

- 사람중심의 사업수행(활동가) ?
- 공통의 비전 &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각자의 사업(운동x)에만 매몰 ?
  - 변화 : 나(개인) → 단체(조직) → 지역 → 사회

#### 4. 다양한 지역문제, 사회문제 해결, 현실화를 위한 정치활동 ?

- 주민참여와 실질적인 정치참여?
- 지역정치의 적극적인 활용 방법은 ?
- 시민활동가의 적극적인 정치진출? 지역정당?



(2) 동대문구에서 청년활동 하기 / 김윤식 대표 (회기동사람들)

**동대문구에서 청년활동 하기**

회기동사람들 김윤식

**#1**

**동대문구의 시민사회 이야기**

**2000년대까지 노동운동과 지역운동 등 해당 시기에 대두되었던 아젠다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고, 아젠다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현재는 새로운 지역운동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1. 1987~1991
  - 6월민중항쟁을 기점으로 지역의 문화단체, 민중운동단체, 노동운동단체, 여학 등이 연대를 모색하여 동대문, 중랑민주단체협의회 결성. 민중운동 이슈와 지역사회의 의제들을 거두고 연대활동을 진행
2. 1992~1995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등에서 비판적 지지 단체와 독자세력화단체의 이견들이 생겨 연대활동의 균열이 생기는 했지만 지역단체와 공동대응의 문제로 진행된 일상적인 연대는 지속
3. 1995~2001
  - 중앙집중운동에서 지역운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단체들 각각 지역에 뿌리내리는 사업들을 구상 및 실행하는 시기
4. 2001~2008
  -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기간 지역은 풀뿌리 주민자치, 사회복지가 주요의제로 본격적인 시민사회단체로 영역확장
5. 2008~현재
  - 시민운동단체와 노동조합 등 민중운동 단체들과 집중하는 의제가 달라 연대가 격기 진행
  - 마을 및 사경제네트워크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정치 네트워크, 인민형극플랫폼이 구축

**최근 10년 내 동대문구에서는 청년조직, 마을공동체, 도서관네트워크, 사회적경제, 미디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 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 청년조직은 회기동사랑들, 에문오아, 도꼬매리 등에 있으며, 지역 상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작은 축제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
- 마을공동체는 함께마을넷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사업단위별로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주민교육이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도서관네트워크는 동대문구 내 공립/사립 도서관들이 있으며, 혁신교육사업 및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는 동대문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확대하고형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쓰고 있음

**활동가그룹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 10년 전인 2010년에는 자원봉사 등의 경험을 계기로 관심이 발생한 주민이나 활동가들을 주체적인 참여자로 이끌어내는 방식을 통해 활동가 그룹이 형성되었다면, 최근에는 활동과 생업을 병행하는 활동가, 청년활동가가 나타나고 있음**

- 이해당사자인 주민으로서 활동하는 주민활동가, 종사자로서의 직업활동가들이 주가 되고 있어, 이전에 비해 보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늘어나고 있음

#2  
동대문에서 청년활동하기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문제를  
우리의 방식으로 이야기해보고 싶다**  
- 옹고 그림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

동대문에서 청년활동하기

청년활동

지역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청년활동가,  
청년기획자 발굴

관계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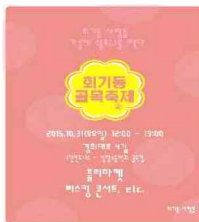
주민, 상인,  
학생들의  
관계(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

커뮤니티 모델

마을공동체의 회복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모  
델

마중물적 청년

동대문에서 청년활동하기



2015년 10월  
가을에 심표(들)를 찍다.



2016년 04월  
투게더



2016년 11월  
너만 오면 되는 페스티벌



2017년 6월  
너만 오면 되는 페스티벌

- 1) 골목상점 온라인 홍보
- 2) 카드뉴스 제작
- 3) 골목상인 영상 제작(15편)
- 4) 골목쓰레기 문제 해결



사랑 사는 곳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숨 프로젝트  
 지역주인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을 재생하는 골목길개선 프로젝트.



지역의 이야기를 잡지로 만들다  
2018년부터 시작된 숨.통 회기동 매거진(현재 2호 발간 완료)



지역활동가 네트워크 파티: 맥국모임



청년파티



커먼즈 In 동대문



지역가번 청년모임

### #3 청년활동에 대한 고민

서울시 동대문구  
다함께  
협치

출처 : 동대문구 협치 페이스북



출처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최근, 지자체 중심의 활동에서 '청년'은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다.

### 서울시,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청년예산 확정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20.08.27 11:15 | 수정 2020.08.27 11:15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30일 15시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다함서클@4대문 캠퍼스에서 본대문으로 상주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청년시민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제언과 예산편성까지 결정하는 회의로, 서울시 청년 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개최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화상회의 및 소규모 회의를 통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숙의공론장을 운영했다.

올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105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의의 협력과 숙의를 통해 77개 정책에 332억원 규모의 청년자활예산(안)을 서울시 사업으로 반영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0. 08. 27 기사

### 청량리역 광장에 '무중력시대 동대문' 들어선다

CBS노컷뉴스 | 기자 미 | 2020-06-09 13:47

뉴스듣기 0 0 0 0



- ▶ '권할' 총중: 14월연액 96% 완가 가능해...비결은?
- ▶ '빛' 지금 다 갈으세요! 시민생계지원금 모두에게 지원 가능해...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무중력시대 동대문'을 착공한다고 8일 밝혔다.

무중력시대 동대문은 8월 준공을 목표로 청량리역 광장에 3층 규모 가설건축물로 청년들이 경제

출처 : CBS노컷뉴스 2020. 06. 09 기사



청년에 대한 정책, 사업, 예산이 없었다면  
청년을 찾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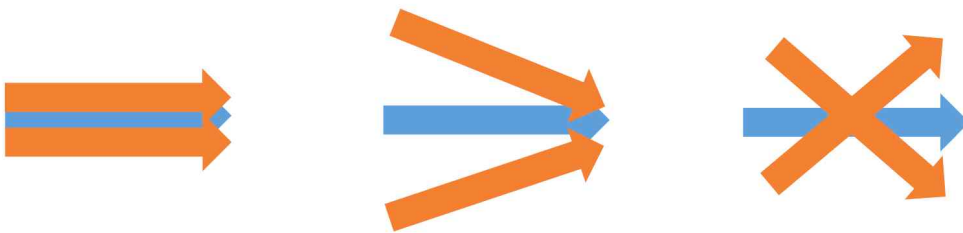
## 개인 활동 방향과 단체 활동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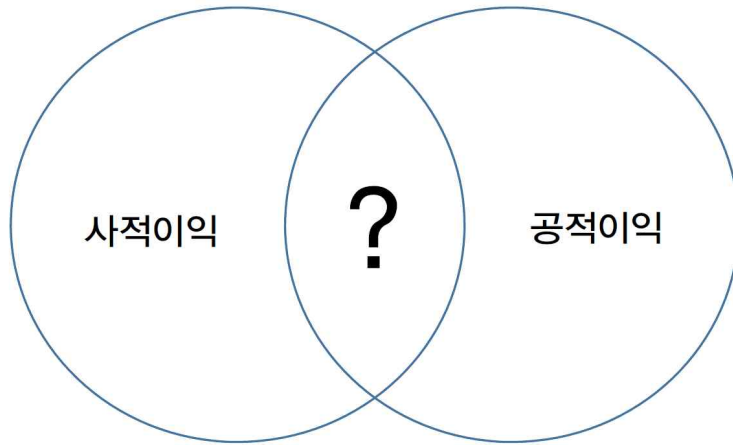
사적이익과 공적이익

재미 vs 가치

청년에 대한 이해

## 개인 활동 방향과 단체 활동 방향성





청년에 대한 이해



# 재미 vs 가치

감사합니다.

(3) 언택트 시대의 시민사회조직과 봉사활동 / 신상선 대표 (성동청년플랫폼)

Turning point

언택트시대 시민사회조직과 봉사활동

발표시작 >

신반장                      06/ Oct/ 2020                      Design by 미리캔버스

순서

<b>01</b> 시민사회의 성장과 과제	<b>02</b>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세상	<b>03</b> 언컨택트사회 선택? Vs 필수?
<b>04</b> 언컨택트 디바이드	<b>05</b> 느슨한 연대의 시작!	<b>06</b> Turning point

시민사회의 성장

“  
새로 정치기관을 만드는 데는 6개월이 걸리고, 절반쯤  
생존가능성 있는 경제체제를 만드는 데는 6년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하나의 시민사회를 창조하는데는 60년이  
걸린다

—  
랄프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_1990, NewYork Times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사회의 본질



1987년 6월

대항 ↓

호혜 ↓

자율 ↑

문제해결 ↑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 2017년 시민사회의과제화 전망>

시민사회의 성장		성장한계
☑ <b>대항</b>	시민들은 더 이상 '지도 받는' 존재로 남아있길 거부 시민단체에 의한 조직적 대항은 한계직면 간헐적으로 폭발하는 저항의 힘을 일상적 변화로 이끌어가는 고민필요	
☑ <b>호혜</b>	시민사회에 의한 호혜적 활동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정책으로 제도화 되는 과정 속에 시민사회가 공공전달체계의 '말단기관'처럼 되고 있는 것 정책수행 또는 정책 대항자로서 시민사회 지위가 매도	
☑ <b>자율</b>	정책에 의한 재정, 공간, 사업 등 정부의존도 증가 특정사업에 참여 동원 등 자율성이 저해	
☑ <b>문제해결</b>	거버넌스 확장에 따라 시민사회와 주민의 이름으로 행정의 사회문제해결 거버넌스의 일부로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 한계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 2017년 시민사회의과제화 전망>

시민사회의 성장		
1987년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b>남겨진 숙제</b>		
<b>시민사회의 주도성</b>	<b>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b>	<b>4가지 흐름의 연결</b>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 2017년 시민사회의과제화 전망>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세상

##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세상

<1928년, 르네 마그리트, 연인2>



<2020년, 필리핀, 합동결혼식>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세상

(서울경기인천)

# 수도권 강화된 2.5단계 거리두기

8.30(일) 0시 ~ 9.6(일) 24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금지
- 공공 다중시설**  
운영 중단
- 공공민간기관 및 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공공) 권고(민간)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민간 다중시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고등학교 3학년 제외)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세상

## 강화된 2.5단계 연장

### 01 소비·생산 타격 불가피

서울 자영업 매출 24.7% 감소. 영화관객 20% 감소  
카드매출액 전주 대비 0.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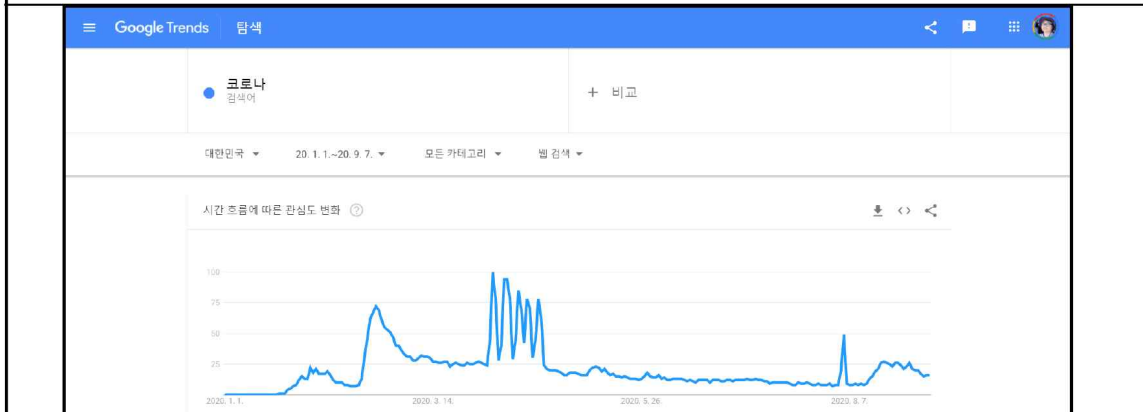
### 02 환경오염

재택근무 음식배달 2배 상승. 사무실 외식 대신 도시락.  
커피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종이·플라스틱 폐기물 10% 증가.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세상

##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코로나’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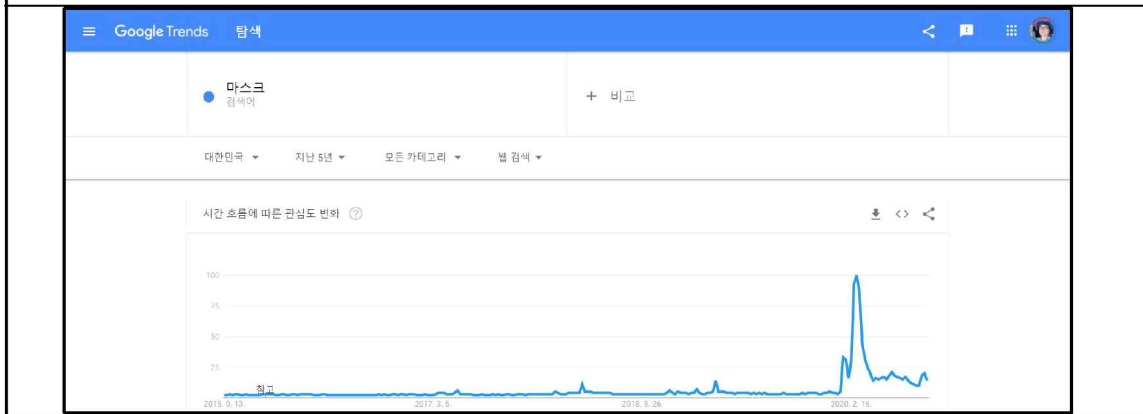


<구글트렌드분석>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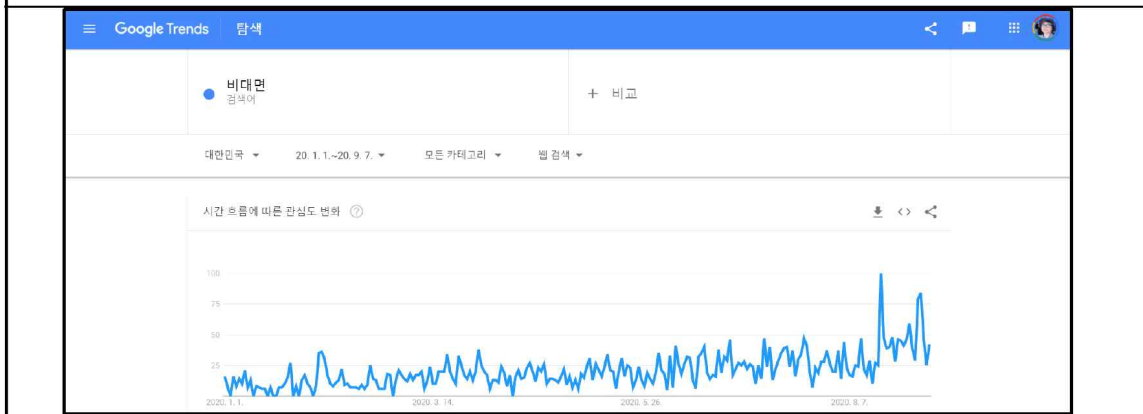
## '마스크'에 대한 관심 급증



<구글트렌드분석>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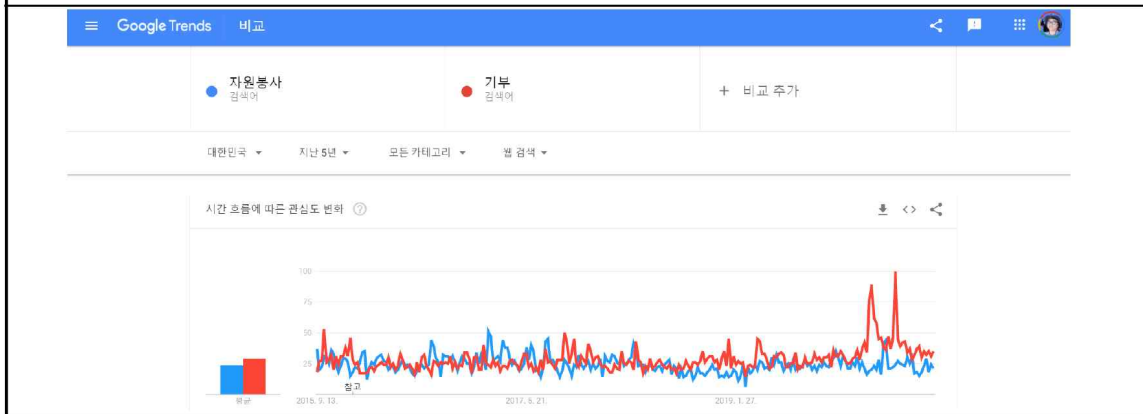
## 다양한 '비대면' 관심



<구글트렌드분석>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세상

## ‘기부’ 관심폭증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세상

‘코로나19’ 팬데믹

## 빌 게이츠, 코로나19 전망...“수백만 더 죽고 내년 말 종식”

입력 2020.08.19 (17:25) | 수정 2020.08.19 (17:26)

국제

1 2 <

닫기



코로나  
종식?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세상

VIP 고객을 위한 홈피팅 서비스

나에게 맞는 사이즈일까?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일까?  
걱정마세요, SSF샵이 함께 보내드려요.



# 만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간다.

## 01 원격서비스

원격회의, 원격근무, 에듀테크, 웨비나, 클라우드서비스, 구글클래스, 토스트워크플레이스'두레이'

## 02 프라이빗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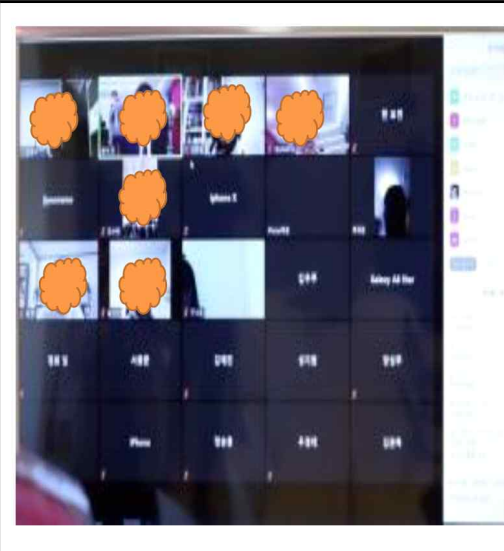
VIP 대상 전시회, 홈피팅서비스, 1인용수영장, 스위트룸 스테이 헬시

## 03 원격교육

대학온라인교육, 초중고 온라인개강, EBS수업, 무크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세상



## 'ZOOM'활용한 비대면 원격수업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개인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어차피 학교에서도 교재 중심을 하시니까...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많죠. 품질은 떨어져요

아직 온라인으로 수업할 준비가 학교도 교수님들도 되어 있지 않아요.

집에 인터넷이 없어서 카페 가서 들어요

굳이 열골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다들 카메라 끄고 있어요

언컨택트사회 선택vs필수

## 언컨택트 사회

<p>“앞으로 몇 십년간 만약 무언가가 1천만 명 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건 아마도 전쟁이 아니라 매우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 일겁니다.” -2015, 빌게이츠-</p> <p><b>2003년 사스</b> <b>2009년 신종인플루엔자</b> <b>2012년 메르스</b> <b>2014년 서아프리카에볼라</b> <b>2020년 COVID-19</b></p>	<p>“인구의 상당부분이 참여하는 재택근무는... 집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게 되면 수행할 수 있다면, 직장을 바꿀 때마다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1981, 앨빈토플러-</p> <p><b>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 의하면 유연근무제 경험자 중 재택·원격근무 경험 4.3%</b> <b>2020년 COVID-19 원격,재택 활성화</b></p>	<p>“2018년 애플이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의 절반 정도가 4년제 학위가 없다” -2018, 팀쿡(CEO)-</p> <p><b>SK유니버시티(SK사내대학)</b> <b>미네르바대학</b> <b>합격률 1.9%(2017년)</b> <b>Apple, Netflix, IBM, Hilton, Bank of America</b> <b>학위요구안함</b></p>	<p>“믿는 사람 소개로 연결, 연결.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일종의 워랄까, 믿음의 벨트?” -2019,영화 기생충 대사-</p> <p><b>고급주상복합아파트 커뮤니티공간, 스포츠짐, 조식서비스제공</b> <b>프리미엄 셰어하우스</b> <b>취향공동체</b> <b>5도2촌, 4도3촌</b></p>
---	--	--	--

언컨택트사회 선택vs필수

<p><b>원격의료</b></p> <p>화상면접</p> <p>홈스쿨링</p> <p><b>에듀테크</b></p>	<p><b>가상의료</b></p> <p><b>원격근무</b></p> <p><b>이커머스시장</b></p> <p>전자pay</p> <p><b>방구석1열</b></p>	<p>온라인채용설명회</p> <p><b>스마트워크</b></p> <p><b>드라이브스르</b></p> <p>홈트레이닝</p> <p><b>스마트오더</b></p>
---	---	---

## 언컨택트사회 선택vs필수

**이XX**

직원과의 불필요한 대면을 줄여, 자유롭게 편리한 소비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야.

하지만, 기계랑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나(특히 어르신, 키오스크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장려하기가 어렵지 않을 경우는 주문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서 그런 점에는 분명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XX**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곳에선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가게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장단점이 좀 있잖아. 요즘 비미언으로 원형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뭔가 영감이 안오기도 해. 앞으로는 거인 다 모든 분야에서 키오스크를 시용하게 되겠지?

그럼 오히려 양은(스마트폰) 그런 게 같은 곳만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가짜 직원과 소통하고 싶으니까 말이야.

**최XX**

너무 좋음...  
[저는 사람이 싫어요!!!]

**권XX**

아직은 낯설고 어려울 때도 종종 있는데.. 사용 중에 갑자기 메러가 생겼을 때 해결점에서 아직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5~60대 어르신들은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아.

**박XX**

내가 직접 기계로 선택하는 거니 주문 실수가 일어날 확률도 높고, 훨씬 편리하지는 하지?

그런데 노인분들을 생각하면 조금 안타까워. 사용법을 몰라서 주문을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거든. 일차로 부족 현상도 사회적으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상 기계가 설치된 매장에서는 개편하기 어렵다.

**송XX**

미래도 저래도 상관은 없지만, 전부 기계로 바뀌는 건 좀...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할 것 같아!  
[말라나, 일지근기가 들어드는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 밀레니얼의 언컨택트



## 언컨택트 디바이드

## 언컨택트 디바이드



**언컨택트 디바이드**



이것 보고 이거 누르는거야? 이거 글.. 글..

# 디지털 디바이드

- 01 스마트폰 보급률**  
70대(35%), 60대(79.1%), 20대~50대(99.8%~97%)
- 02 인터넷뱅킹사용**  
65세 이상(7%), 40~64세(63.9%), 20~39세(95.6%)
- 03 온라인쇼핑 및 예약**  
65세 이상(6.5%), 40~64세(63.4%), 20~39세(97%)
- 04 스마트폰 파일 컴퓨터로 이동**  
65세 이상(5.7%), 40~64세(53.8%), 20~39세(93.9%)



내가 주문하고 싶은거 아니고 아무거나 눌렀어요 일단은...  
아니 그게 혼동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화살표를 누르니까 되더라고요

# 언컨택트 디바이드

<20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디바이드의실태>

**느슨한연대의 시작**

## 느슨한 연대의 시작

가족과 직장, 인맥으로 대표되는 세가지 끈끈한 연대 지속될 것인가?

### 01 가족

“2030년 결혼제도가 사라지고 90%가 동거로 바뀔 것이다”  
-자크아달리, 21세기사전-  
‘비혼’이 비주류나 아웃사이더로 취급 받던 시대는 종료  
프랑스팍스커플 2001년(16,589건), 2017년(193,950건)  
결혼과 무관한 동거찬성 2015년(27.1%), 2018년(36.8%)  
25세 미만은 47.7%찬성  
조혼인율 1970년(9.2건), 1980년(10.6건), 1995년(9.4건),  
2003년(6.3건), 2019년(5건)

### 02 직장

평생직장, 종신고용!은 이제 옛말  
이직설문조사: 2010년(2.9회), 2019년(4회)  
유능한직장인?: (한직장 오래근무 vs 자주이직)  
넷플릭스 컬처맥: “우리는 스포츠팀이지, 가족이 아니다)  
평균근속연수: 페이스북(2.5년), 테슬라(2.1년),  
넷플릭스(3.1년), 에어비앤비(2.6년), 우버(1.8년)  
직장은 연속적연대가 아닌 일시적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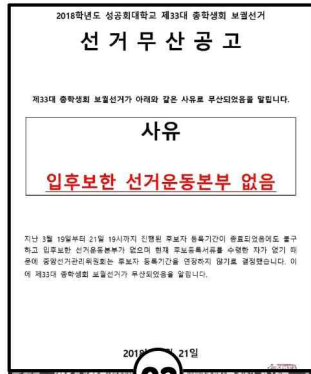
### 01 인맥

70~80년대 기업공채 인기경력: 전역장교  
9급공무원 60%여성, 대기업4년대졸신입사업 70% 남성  
LG CNS 호봉제 폐지: 2019년기술역량 50%반영, 2021년부터  
100%반영  
기업은 생존을 위해 애자일기반경영체제로 전환: 일하는 방식 뿐  
아니라 평가와 동기부여 방식도 전환 중

**느슨한연대의 시작**



01  
NO JAPAN 불매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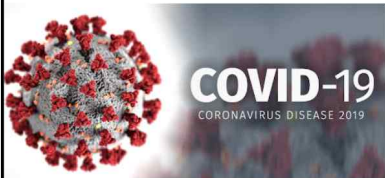
02  
2019년, 35개 대학 중 8개대학



03  
2016년,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반대

**느슨한 연대의 힘**

**Turning point**



**Turning point**  
〈2020년 ~ 20\*\*년〉

<p><b>시민사회의 주도성</b></p>	<p><b>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b></p>	<p><b>4가지 흐름의 연결</b></p>	<p><b>도덕에서 삶의 양식으로</b></p>
-------------------------	---------------------------	--------------------------	----------------------------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 2017년 시민사회의과제화 전망>

Turning point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주도성</b>	정부와 시장이 지닌 권력과 자본의 질서를 견제하는 사회의 '균형추' 정부와 시장에 의해 규정된 담론의 탈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지속가능성</b>	정부와 시장의 재정 보전에 의한 활동한계 시민의 기부나 회비로만 운영할 수 없다는 한계 인정과 대안 마련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활동에 공공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담론 형성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b>4가지 흐름의 연결</b>	시민사회 힘의 원천은 연대 대항,호혜, 자율, 문제해결의 잠재력 연결을 통한 시너지 발생유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도덕에서 삶의 양식으로</b>	시민사회활동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만 하는 활동이 아님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이 시민사회 활동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양식이라는 문화형성이 필요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 2017년 시민사회의과제화 전망 >

Turning point
<p><b>COVID-19가 가속시킨 언택트</b>  <b>우한에서 시작된 전세계로의 질문</b></p>
<p><b>새로운 운동 ?</b></p>



**감사합니다.”**

**발표 끝!**

신반장

06/ Oct/ 2020

Design by 미리캔버스

2020년

동북1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 결과보고서

---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SNPO 2020-B-005)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주 소 (0452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 2층

전 화 02-734-1109

전 송 02-734-1118

메 일 contact@snpo.kr

홈페이지 <http://snpo.kr> [www.facebook.com/seoulnpocenter](http://www.facebook.com/seoulnpocenter)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 NO - ND (크리에이티브 거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시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